

도심서 즐기는 물놀이...서울한강수영장 '올 여름도 부탁해'

지하철역 옆 물놀이장...워터파크가 따로 없네

후더분한 습기를 몰고 온 여름 장마도 서서히 끝이 보이고 있다.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찾아오면서 본격적인 여름 나들이 시즌이 시작된다. 극성수기 유명 피서지까지 이동하느라 길에서 소비하는 시간과 현지 바가지요금에 걱정된다면 서울 시내로 눈을 돌려보자. 잘 갖추어진 시설과 합리적인 요금을 가진 도심 휴양지들이 있다. 바로 6월28일 일제히 개장한 한강야외수영장들이다.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이 가성비와 가심비를 동시에 만족하는 실속 한강야외수영장을 정리했다.

유수풀부터 놀이기구까지 완비 생존수영·인명구조법 무료교육 윈드서핑 등 수상스포츠도 만끽 성인 5000원...6세 미만은 공짜 '가성비 갑' 여름 피서지로 인기



난지물놀이장 여의도야외수영장 독섬야외수영장

현재 개장한 한강야외수영장은 모두 독섬, 광나루, 잠실, 잠원, 여의도 등 5곳이고, 규모가 작은 물놀이장도 2곳(양화, 난지)이 개장했다. 8월 25일까지 운영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개장하며 매시 정각부터 45분간 물놀이 하고 15분 휴식하는 시스템이다. 성인 5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3000원, 6세 미만은 무료다. 물놀이장은 2000원씩 싸다.

●유수풀도 있어...독섬야외수영장
전철 7호선 독섬유원지역과 가깝다. 성인풀, 유아풀, 청소년풀과 함께 시냇물

같은 물살을 즐길 수 있는 유수풀도 갖추고 있다. 수영장 외곽에 나무 그늘에 텐트를 칠 수 있는 구역이 있다. 선베드는 물놀이 구역과 분리해 조성했다. 독섬 한강공원에 윈드서핑, 카약, 수상스키 등을 즐길 수 있는 수상스포츠센터와 인공암벽장 등의 레포츠 시설이 있다.

●생존수영 체험교실...여의도야외수영장
성인풀, 청소년풀, 어린이풀이 있으며 태닝 존이 따로 있다. 성인풀과 청소년풀 둘레에 선베드와 파라솔을 설치했다. 방문객 대상으로 생존 수영 체험 교실을 운영한다. 해양경찰 10여 명이 매

일 2회 생존수영을 무료로 교육한다. 8세 이상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생존수영법, 구명뗏목, 퇴선훈련, 인명구조법 등을 익힌다. 인천해양경찰서 한강파출소(02-761-7122)로 전화예약 또는 당일 현장접수하면 된다.

●7월말 놀이기구 설치...광나루야외수영장
7월 말 방학시즌에 맞춰 워터볼, 페달보트, 미끄럼틀 등의 놀이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놀이기구 이용 시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다. 풀장 바로 옆에 그늘막과 선베드를 배치했다. 광나루 한강공원 어린이놀이터 뒤편에 한강드론공원이 있다.

●수질·인원 관리 꼼꼼...잠실야외수영장
매일 오전 8시 50분부터 오후 7시 50분까지 매 시간 성인풀, 청소년풀, 유아풀의 수질과 입장 인원을 측정해 현황판에 적어둔다. 수심 1.2m의 성인풀 둘레에 파라솔과 선베드 구역을 두었다. 워터플레이 존, 어린이보트존, 워터볼존, 파도슬라이드 존 등의 어드벤처 놀이기구가 있다.

●그늘막 넉넉...잠원야외수영장
수영을 하고 싶으면 성인풀을 이용하면 되고, 성인풀에서는 튜브를 사용할 수 없다. 청소년풀과 성인풀에서 선글라스 착용도 금지다. 수심이 깊어 바닥에 떨어지면 찾기가 힘들고 깨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수영장들보다 풀장 둘레에 그늘막을 많이 설치해 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다. 그늘막 주변에 파라솔과 선베드를 함께 설치했다. 쇼파와 먹을거리 상권이 발달한 압구정동, 신사동, 잠원동 등이 가깝다.

●자녀와 놀기 좋은 난지·양화물놀이장
난지 물놀이장은 평지형인 다른 수영장들과 달리 야외 공연장처럼 조성했다. 수영장 바깥 면을 한강과 맞닿게 설계해 인피니티 풀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양화 물놀이장과 같이 풀장 바닥이 경사졌으며 최대 수심이 0.8m로 어린이들이 동반한 가족들이 즐겨 찾는다. 양화 물놀이장은 개울 형태의 물놀이장을 한강변을 따라 조성했다. 수심이 얇은 곳은 아이 발목 정도여서 어린이들이 동반한 가족들이 많이 방문한다. 도보 20분 거리에 선유도공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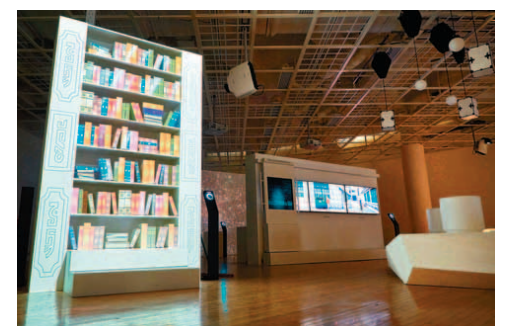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한 눈으로 보는 경제 17일

코스피지수	2092.92	↓	-18.95
코스닥지수	666.28	↓	-8.14
日 닛케이 지수	2만1469.18	↓	-66.07
中 상하이 종합	2931.69	↓	-5.92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1.43		0
환율 (원·달러)	1181.00	↑	+2.50
국내금값 (원/그램)	5만3369.03	↓	-219.37

동남아 빅마켓 인도네시아 의료관광 공략 거점기지로 자카르타서 한국의료·웰니스 관광대전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19일부터 대규모 '한국 의료·웰니스 관광대전'을 개최한다. 자카르타 물리아 호텔 등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과 유치업체 등 15개 기관과, 현지 여행사, 병원, 의료관광 에이전시, 금융기관 등 80여 개 인도네시아 의료 관련업체가 참여한다. 세계 의료관광산업은 앞으로 10년간 매년 15%의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인도네시아의 방문 의료관광객은 지난해 3270명으로 전년대비 37.1% 증가했고, 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도 326만 원로 전체평균 진료비의 1.6배에 달한다. 한국관광공사 한화준 관광상품실장은 "인구 2억7000만 명으로 세계 4위의 유력 시장인 인도네시아는 의료관광시장 다변화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 이번 행사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김재범 기자



넥슨이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25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전시회를 진행한다. 서울 중로 아트선재센터의 '게임을 게임하다' 전시장. 사진제공 | 넥슨

맥주·워터파크 할인 카드사 '여름 마케팅'

카드사들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제맥주 및 워터파크 할인, 포인트 지원 등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롯데카드사는 22일부터 8월 17일까지 전국 수제맥주 양조 전문 브랜드 매장 할인 이벤트 '고.베케이션-브루어리'를 진행한다. 결제일 40% 할인을 제공하며 1인당 1회로 최대 2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 더버스, 부산 고릴라, 제주도 제주맥주, 강원도 강릉 버드나무, 울산 화수브루어리 등 24개 매장에서 열린다. BC카드사는 8월 25일까지 캐리비안베이와 하이원 워터월드 현장에서 BC 신용 및 체크카드로 성인 주간이용권 구매하면 동



반 1인 입장권을 무료로 제공한다(사진). KB국민카드는 8월 31일까지 오션월드에서 이용 일자에 따라 본인 입장권을 최대 59% 할인한다. 신한카드는 8월 31일까지 '핫 썸머 페스티벌'에서 마이신한포인트를 제공한다. 홈페이지에서 이벤트 응모 후 바캉스 관련 업종에서 30만 원 이상 이용하면 200명에게 이용금액의 10%를 5만 포인트 한도로 적립해 준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무인택배 '스마일박스' 주유소 확대

GM마켓과 옥션 등에서 구입한 상품을 가까운 GS25 편의점에서 받는 무인택배 서비스 '스마일박스'를 주유소와 수퍼마켓에서도 받을 수 있다. 이베이에코리오는 GS칼텍스와 SK에너지, GS리테일과 제휴를 맺고 스마일박스를 확대한다. 주유소의 경우 GS칼텍

스 라석주유소와 여의도 주유소, SK에너지 보라매 셀프주유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 송파구와 관악구 18개 GS수퍼마켓에서도 스마일박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향후 주유소와 수퍼마켓 거점을 더 늘릴 계획이다. 2016년 처음 선보인 스마일박스는 현재 서울과 경기도의 GS25와 대학 기숙사 등 600여 곳에 설치되어 있다. 김명근 기자

꿀씨의 반란 이끈 '하현회 체제' 1년

(LG유플러스)

5G 시장 점유율 29% 달성 성과 불구 속도 비교 논란·화웨이 장비 이슈도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과감한 전략으로 '꿀씨의 반란'을 이끌었다는 평가와 공격적인 행보로 인한 난제도 많았다는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우선 상용화 100일을 맞은 5G 시장에서 점유율 29%를 달성하며 고차화되던 이동통신 시장 판도를 흔든 것은 하 부회장의 성과다.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1분기 LG유플러스의 IPTV 가입자는 13만 명 증가해 같은 기간 KT와 SK브로드밴드 순증 가입자를 앞섰다. LG유플러스는 하반기 CJ헬로 인수로 미디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하 부회장은 16일 2분기 사내 성과 공유회에서 "CJ헬로 인수로 미디어 시장 판도를 바꾸기 위한 또 다른 전략과 실행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게임 체인저'로 한 몫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도 낳았다. 5G 속도 비교 마케팅이 대표적이다. 경쟁사 반발과 함께 '커버리지 확대 등 품질에 신



취임 1주년을 맞은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하반기 미디어 플랫폼 강화와 5G 전략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 LG유플러스

경쟁야 한다"는 소비자 비판을 불러왔다. 하반기 가장 중요한 사업인 CJ헬로 인수도 '알뜰폰 분리매각' 이슈가 복병으로 떠올랐다. 여기에 미국 제재를 받는 화웨이의 5G 장비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사용한다는 점도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단군의 땅부터 마비노기까지 넥슨 '게임을 게임하다' 전시

넥슨이 기획전시회 '게임을 게임하다'를 18일부터 9월 1일까지 서울 중로 아트선재센터에서 개최한다. 대한민국 온라인게임 25주년을 맞아 마련한 전시로 온라인게임의 특성인 '참여'와 '성장'을 테마로 했다. 마치 온라인 게임을 즐기듯 입구에서 로그인을 한 뒤 ID 밴드를 활용해 전시장 곳곳의 체크포인트에 태깅하며 20점의 작품을 체험할 수 있다. '카트라이더'의 카트가 증강현실(AR)로 전시공간을 누비고 '마비노기' 속 논플레이어캐릭터(NPC)의 시선을 체험해 볼 수 있다. 넥슨 게임 뿐 아니라 '단군의땅'이나 '주라기공원' 등 온라인 게임의 태동기를 보여주는 영상과 현재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온라인 게임 연대기 등 25주년의 의미를 담은 다양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다. 무료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김명근 기자

* 교육·퍼즐은 11면에 옮겨 실었습니다